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림흥동에서 발굴된 고구려유물유적들

우리는 고구려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 대성구역 림흥동으로 향하였다.

한것은 지난해에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학술연구집단이 이 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1세기~5세기초까지의 고구려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기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림흥동 일대에서는 고구려시기 건물터의 일부와 2개의 고구려우물(1호, 2호), 벽돌로 축조된 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조각, 질그릇조각 등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현재 보존유적으로 등록된 림흥동고구려우물 1호와 2호를 돌아보았다.

이 유적들은 림흥동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발굴 당시 우물들은 내부시설만 기본적으로 남아있고 우물벽의 윗부분의 일부가 파괴되어있었다고 한다.

1호우물은 밑바닥을 잔자갈과 모래, 진흙으로 다진

다음 정4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우에 4각추모양으로 다듬은 돌들로 처음에는 8각형, 다음에는 원형의 평면을 이루게 벽체를 쌓아올렸다고 한다.

2호우물도 밑바닥을 1호우물과 같이 다진 다음 정8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우에 일정한 높이까지는 강자갈로, 나머지는 남작한 돌로 우물벽을 쌓아올렸다.

발굴 당시 우물들에서 돌바둑판조각, 기와조각, 질그릇조각, 쇠가마조각, 수레갈통쇠조각, 솥뚜껑, 참빗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림금석실장은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은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입니다. 연구결과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구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림금석실장은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은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입니다. 연구결과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구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림금석실장은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은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입니다. 연구결과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구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림금석실장은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은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입니다. 연구결과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구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림금석실장은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은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입니다. 연구결과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구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림금석실장은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은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입니다. 연구결과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구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림흥동고구려우물 2호의 내부와 8 각방틀과 발굴된 유물들



림흥동고구려우물 1호의 내부와 4 각방틀과 발굴된 유물들

혈분의 자욱을 남긴 지사들



황해남도 재령에서 태어난 라석주는 16살에 사립보명학교에 들어가 4년간 공부하였다.

1910년 10월 일제가 조선에

라 석 주

서 극악한 식민지총독통치를 실시하자 이에 분격하여 23살 나던 해 봄에 처자를 데리고 북간도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리동휘가 세운 무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그의 밑에서 활동하던 그는 25살때 국내에 들어와 군자금 모집하는 한편 동료들을 규합하여 일제경찰과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1921년 10월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다시 중국으로 간 그는 상해임시정부에서 경무국 경호원으로 있다가 한남성 약장에 설립된 한단군관

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중국국민당군대 중대장으로 있었다.

그후 의련단에 들어간 그는 일제의 식민지적착취기관인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식주식회사》를 파괴할 목적으로 1926년 12월 국내로 들어왔다.

12월 28일 《조선식산은행》에 돌입한 그는 영업과 대부실을 향하여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되었다.

그걸로 다시 《동양척식식주식회사》에 돌입하여 2층 도지계장부 기술과에 폭탄을 던졌으며 과장 아야다를 비롯한 여러명을 권총으로 쏘아 쓰러뜨렸다.

건물밖으로 급히 빠져나온 그는 추격하는 일제경찰을 사살하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식주식회사》를 습격하고 일본인 7명을 살상한 이 사건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착취에 피눈물이 되어 날뛰던 일제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눈먼 말 타고 벼랑으로 간다. 앞을 잘 보는 눈 성한 말을 타고 벼랑으로 간다 하여도 위태로운 일인데 앞을 못보는 눈먼 말을 타고 갈 아닌 벼랑으로 간다는 뜻으로서 매우 위험천만한것을 함을 비겨 이르는 말. ◆ 칼 들고 뿔뿔기 칼을 입에 물고 위험천만하게 뿔뿔기를 한다는 뜻으로서 위태로운 일에 뛰어드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풀밭에 앉은 새 안심되지 않고 불안한 처지에 있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바람앞에 등불 바람앞에 선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뜻으로서 어느 날이나 어떻게 될지 모를 몹시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상태를 두고 비겨 이르는 말.

권강상식

고열람음료와 물

커피, 차, 과일즙은 물을 대신할수 없다. 이런 음료에는 물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기타 물질을 함유한 용액에 불과하다. 또한 카페인, 나트륨, 당, 린 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 따라서 제일 좋기는 물을 마시는것이 좋다. 고열람음료라도 물을 대신할수는 없다.

자신도 못알아보는 글

한 재상이 글을 쓸 때 범 다 갈겨쓰기를 좋아하였다. 한번은 흥분한김에 손이 움직이는대로 붓을 휘둘렀는데 그는 글내용보다도 《붓끝에서 뿜이 날고 봉합이 솜을 춘다》는 시구절을 생각하며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글을 다 쓴 다음 재상은 한 판에다 정서하라고 원고를 넘겨주었다. 판리는 원고를 옮겨쓰다가

사 화

마지막발명품 (2)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과학이나 기술은 천한 일로 여겨 판심조차 돌리지 않았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한 늙은 신하가 주저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소신이 들은바에 의하면 경성도 동래현에 사는 장영실이라는 판도가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있다고 하옵니다. 무슨 일인지 영실이 말하면 실수가 없다 하오니 한번 시험해보심이 어떠하올지... 소신의 생각으로는...》

《동래현에 사는 판도라?》 세종은 다소 미덥지 못하다는듯이 눈을 치켰다.

《경이 그 동래현 판도를 직접 보았는고?》

《황송하오나 소신은 장영실을 보지 못하였사옵나이다. 다만 몇해전에 소신의 조카되는 사람이 동래현 현령을 지내고 와서 하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사온데 지금 한양장안 정인바치들속에서도 장영실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있는줄로 아뢰옵니다.》

《상감마마, 적실한 말인 줄로 아옵니다.》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1429년에 봉건관료이며 학자인 정초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영농방법과 영농경험을 종합체계화한 농업관계책이다.

이 책은 제한된 지역의 영농경험만을 수록한것으로 하여 분량이 비교적 적으나 책에는 종자의 준비로부터 밭갈이, 거름준비, 여러 알곡

작물의 재배법 등 농작물재배에 알아야 할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이밖에도 책에는 여러가지 농기구들과 거름주는 법 그리고 기장, 조, 피, 밀, 보리 등 벼과작물과 콩, 팥, 옥수수 등 콩과작물, 참깨와 메밀재배법 등도 되어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책은 조선 봉건왕조후기에 이르기까지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분장자기 제조술

고려후반기에 창조된 분장자기는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발전되었다.

분장자기의 특징은 백토로 그릇겉면을 바르거나 문양을 표현하고 재색이나 재

빛도는 검은색 또는 재빛도는 푸른색유약을 발라 변화무쌍한 장식효과를 나타낸것이다.

분장자기는 그 종류도 상감분장자기, 굵은문양분장자기, 술자육문양분장자기, 호

름문양분장자기, 석각분장자기 등으로 다양하였다.

대표적인 유물은 녀름무늬 분장자기이다.

큰 분칠붓을 댄듯 붓자리가 수평으로 둘러진 이 유물은 붓질의 수평성, 속도감으로 하여 독특한 정서를 안겨준다.

분장자기에는 일부러 장식을 화려하게 하거나 어색하게 꾸민것이 없고 색이 부드럽고 기법이 창조적으로 구사되어 우리 선조들의 활달하고 낙천적이며 소박한 감정과 정서, 취미가 그대로 표현되어있다.

이렇듯 분장자기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우리 민족특유의 도자유산중들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1429년에 봉건관료이며 학자인 정초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영농방법과 영농경험을 종합체계화한 농업관계책이다.

이 책은 제한된 지역의 영농경험만을 수록한것으로 하여 분량이 비교적 적으나 책에는 종자의 준비로부터 밭갈이, 거름준비, 여러 알곡

작물의 재배법 등 농작물재배에 알아야 할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이밖에도 책에는 여러가지 농기구들과 거름주는 법 그리고 기장, 조, 피, 밀, 보리 등 벼과작물과 콩, 팥, 옥수수 등 콩과작물, 참깨와 메밀재배법 등도 되어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책은 조선 봉건왕조후기에 이르기까지

본사기자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1429년에 봉건관료이며 학자인 정초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영농방법과 영농경험을 종합체계화한 농업관계책이다.

이 책은 제한된 지역의 영농경험만을 수록한것으로 하여 분량이 비교적 적으나 책에는 종자의 준비로부터 밭갈이, 거름준비, 여러 알곡

작물의 재배법 등 농작물재배에 알아야 할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이밖에도 책에는 여러가지 농기구들과 거름주는 법 그리고 기장, 조, 피, 밀, 보리 등 벼과작물과 콩, 팥, 옥수수 등 콩과작물, 참깨와 메밀재배법 등도 되어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책은 조선 봉건왕조후기에 이르기까지

본사기자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가장 오래된 농업도서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1429년에 봉건관료이며 학자인 정초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영농방법과 영농경험을 종합체계화한 농업관계책이다.

이 책은 제한된 지역의 영농경험만을 수록한것으로 하여 분량이 비교적 적으나 책에는 종자의 준비로부터 밭갈이, 거름준비, 여러 알곡

작물의 재배법 등 농작물재배에 알아야 할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이밖에도 책에는 여러가지 농기구들과 거름주는 법 그리고 기장, 조, 피, 밀, 보리 등 벼과작물과 콩, 팥, 옥수수 등 콩과작물, 참깨와 메밀재배법 등도 되어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책은 조선 봉건왕조후기에 이르기까지

본사기자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합흥제 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미더운 교육자들속에는 합흥제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도 있다. 학생의 실력은 교원의 교육 자질자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새긴 그는 교수 준비와 수업의 전 과정을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교재연구와 자질 향상사업에 모든 정열을 바치었다.

그는 수제교육지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교에 원서번역열풍을 일으켰으며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교수안작성에 힘을 들였다. 그가 내놓은 원簿복수에 대한 개념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효과적인 다매체편집물은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전국의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광학기구제작 등 인식교양적, 실천적가치가 큰 다매체편집물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실험기구전시회에 출품시켰으며 전국적인 교수경연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쟁취하였다. 수제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치있는 10여건의 소논문들을 집필하고 우수한 교수방법들과 프로그램

들을 창안하여 교육의 질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수많은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키워냈다.

평범한 광부의 아들을 교육인재양성의 원동장인 김형직사범대학에서 마음껏 배우도록 보살펴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20여년을 교단에서 후대교육사업에 전념하고있는 그를 나라에서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하도록 내세워주었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학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그는 후대들을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재로 키워갈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대성산뚝향나무



대성산뚝향나무는 본래 1600년경부터 남포에서 자라던것을 1959년 중앙식물원에 옮겨심었다. 나무의 높이는 3.2m이고 밑동둘레는 3.3m, 가슴높이둘레는 3.1m이며 나무갓 너비는 14m로서 그 둘레가 41m가량 된다. 나무의 줄기는 0.5m높이에서 세갈래로 갈라지면서 수평으로 뻗었으며 끝부분은 점차 아래로 드리우고 있다.

이 나무는 모양이 보기 좋을뿐 아니라 향기롭다. 대성산뚝향나무는 특향 나무의 최대수명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특향 나무 가운데서 가장 크고 수평방향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있으므로 풍치적의의도 큰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니 공조참판 등과 더불어 기술을 아끼지 말고 힘써주기를 바라노라. 《황송하오이다. 변변치 못한 재주이오나 다 바쳐서 보답하오이다.》 《장한 생각이로다. 그러면 그만 들어가 쉬거라.》 세종은 력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영실은 땅에 엎드린채 일어설념을 못하였다. 참판 리천이 일깨워주어서야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

어떠하오? 신하들은 약속이나 한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종은 그들이 불만을 품고있다는것을 눈치챘으나 짐짓 모르는체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경들이 다른 뜻이 없다면 상의원 별좌(종5품벼슬) 한자리 제수하는것이 마땅할 듯하오.》 《상감마마, 황송하오나 그것은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허허, 참말로 답답한 하오.》 세종은 혼자서 허거르게 웃었다.

《과인이 판직을 주는 법도를 그르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영실의 재주를 귀중히 여길뿐이오. 그 한사람에게 미미한 말직 한자리 맡긴다 하여 엄정한 법도가 허물어질리가 있겠소.》 그래도 신하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소발통처럼 한번 내뿜으면 종처럼 굴러버지 않는 편협하고 완고한 벼슬아치들이었다. 세종은 다시한번 허거픈 웃음을 짓는것으로 그치고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인이 동래현에서 불러온 장영실을 만나보았는데 든든바대로 파시 인물이 똑똑해보이고 장차 크게 세아 할듯하니 판직을 주어 말은 바 직분에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하오. 경들의 생각은

《과인이 동래현에서 불러온 장영실을 만나보았는데 든든바대로 파시 인물이 똑똑해보이고 장차 크게 세아 할듯하니 판직을 주어 말은 바 직분에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하오. 경들의 생각은

《과인이 동래현에서 불러온 장영실을 만나보았는데 든든바대로 파시 인물이 똑똑해보이고 장차 크게 세아 할듯하니 판직을 주어 말은 바 직분에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하오. 경들의 생각은

《과인이 동래현에서 불러온 장영실을 만나보았는데 든든바대로 파시 인물이 똑똑해보이고 장차 크게 세아 할듯하니 판직을 주어 말은 바 직분에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하오. 경들의 생각은

《과인이 동래현에서 불러온 장영실을 만나보았는데 든든바대로 파시 인물이 똑똑해보이고 장차 크게 세아 할듯하니 판직을 주어 말은 바 직분에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하오. 경들의 생각은

《과인이 동래현에서 불러온 장영실을 만나보았는데 든든바대로 파시 인물이 똑똑해보이고 장차 크게 세아 할듯하니 판직을 주어 말은 바 직분에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하오. 경들의 생각은